

실전클리닉 & 즐거운 골프

주말판 광주일보 '스포츠'에서는 격주로 '실전 클리닉& 즐거운 골프'를 실고 있습니다. 프로골퍼의 수준 높은 무료 지도로 아마골퍼들의 실력 향상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골프 클리닉 참여를 원하시는 독자께서는 광주일보 체육부(220-0663)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골퍼 비거리 늘리기

어깨턴이뤄 스윙궤도 늘리면 10~20야드 더 간다

한국여자프로골프의 새로운 에이스 신지애(19·하이마트)가 세계랭킹 톱10 진입을 앞두고 있다.

함평골프고 출신으로 고등학교 3학년 때인 지난해 상금왕, 신인왕등 5관왕을 휩쓸며 한국여자프로골프를 평정한 신지애는 지난 2일 끝난 제62회 US여자오픈 6위에 오른데 힘입어 세계랭킹 11위를 기록했다.

특히 신지애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무대에서 주로 활동하면서도 상위권에 올라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와 달리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의 성적은 세계랭킹 포인트에 반영된다.

따라서 신지애는 이달부터 열리는 특급 대회인 HSBC 여자월드매치플레이 챔피언십과 에비앙 마스터스를 비롯해 8월 개막하는 브리티시여자

어프로치샷, 인사이드에서 인으로 빠져나가는 스윙을

오른 등에 출현할 뿐 아니라 각종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초청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완도 출신 최경주가 PGA를 호령하며 이어 함평출신 신지애가 LPGA를 호령할 날도 머지 않았다. 특히 신지애는 교묘를 갖 줄임한 새내기임에도 한국여자골프를 평정하고 세계무대에 걸출한 도전을 하고 있어 올 해안에 우승 낭보가 날아들 것으로 기대된다. 신지애는 작은 체구임에도 270야드를 날라드는 장타를 때려낸다. 어렸을 적 아버지의 지도로 야구배트로 타이어 때리기를 해 손목힘이 뛰어나다. 또한 신지애는 집중력과 흔들림 없는 평상심이 타 선수를 압도한다.

아마추어 골퍼들도 신지애의 낭보를 기대하면서 집중력과 흔들리지 않는 평상심을 배우면 보다 낮은 스코어를 작성할 수 있다.

이번주는 골프 입문 7개월째 접어든 초보 골퍼 박도희(여·37·서구 상무지구)씨가 골프클리닉을 노크했다.

골프입문 6개월을 넘긴 왕초보 골퍼 박씨는 "4년 필드에 나갔는데 아직 100타를 깨지 못했다"며 "급방 빌 것 같은데 안된다"고 말했다.

김진철 프로는 골퍼는 욕심대로 되지 않는다며 어프로치부터 점검해 들어갔다.

김프로는 박씨가 여자골퍼로서는 클럽을 가볍게 다루는데다 임팩트가 정확해 6개월 된 골퍼같지 않다고 놀라움을 표시했다.

박씨는 어프로치에서 체중이 오른쪽에 있는데다 클럽 헤드를 바깥쪽으로 내미는 잘못된 동작을 갖고 있어 김 프로의 지적을 받았다. 김 프로는 어프로치를 할 때는 항상 핸드퍼스트 자세를 취하고 체중을 왼발에 미리 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항상 스윙궤도는 인사이드에서 인으로 빠져나가야 정확하고 부드러운 샷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스윙을 익히기 위해서는 두다리를 모으고 하프스윙을 하면서 클럽헤드가 지나가도록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어프로치를 마친 박씨에게 김프로는 기대어린 시선과 함께 7번 아이언 샷 점검에 들어갔다.

박씨는 역시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정확한 임팩트와 파워풀한 스윙으로 김프로를 놀라게 했다. 김프로는 박씨에게 골프하기전에 운동을 하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손사래를 치던 박씨는 욕심을 조금 했다고 얼굴을

붉였다.

김프로는 대체적으로 박씨가 좋은 스윙을 하고 있지만 어깨회전 부족으로 인해 체중이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좀 더 강한 스윙을 방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프로의 칭찬에 신이난 박씨는 어깨회전과 함께 체중이동이 되면서 강력한 스윙을 보여줬다. 김프로는 박씨의 강한 임팩트를 보고 남성 골퍼 못지 않은 파워를 보이고 있다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김프로는 여성골퍼의 경우 클럽 자체를 다루는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상 비거리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데 박씨의 경우 클럽을 자유자재로 다루는데다 임팩트가 워낙 좋아 남성 골퍼들과 견줘도 손색이 없다고 말했다.

스윙에 자신이 붙은 박씨는 김프로에게 드라이버에 대한 점검을 부탁했다. 박씨는 드라이버 다운스윙을 할 때 헤드가 풀리기 때문에 클럽 끝부분이 아닌 헤드가 먼저 내려와 뒷땅이나 슬라이스가 발생하고 있었다.

김프로는 다운스윙을 할 때 클럽 끝이 리드를 해야만 좋은 스윙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아마추어들이 다운스윙을 할 때 가장 많이 범하는 잘못된 동작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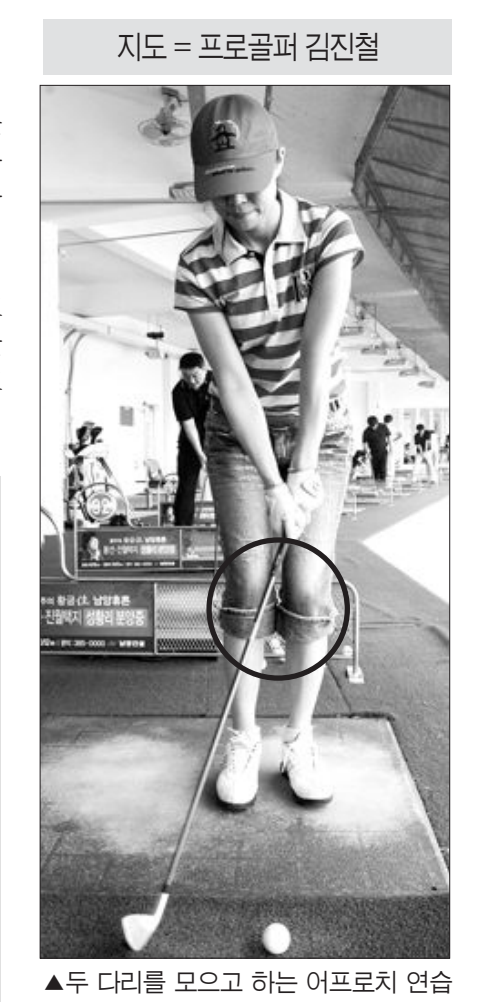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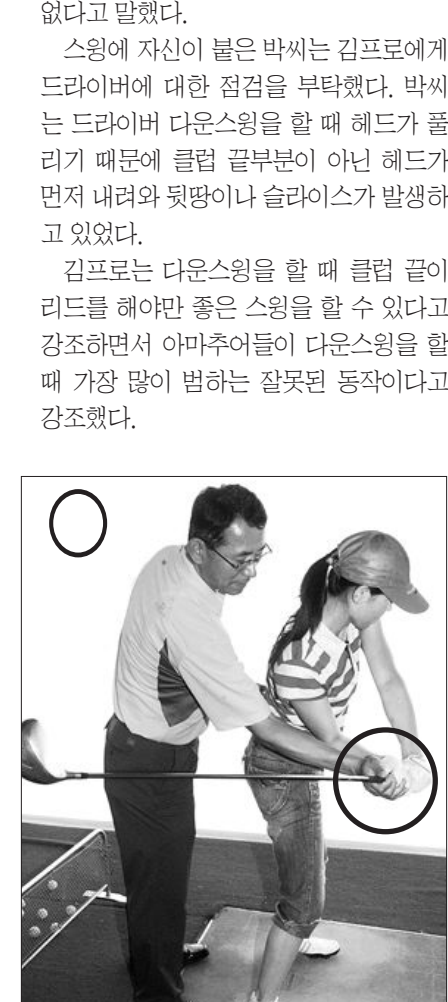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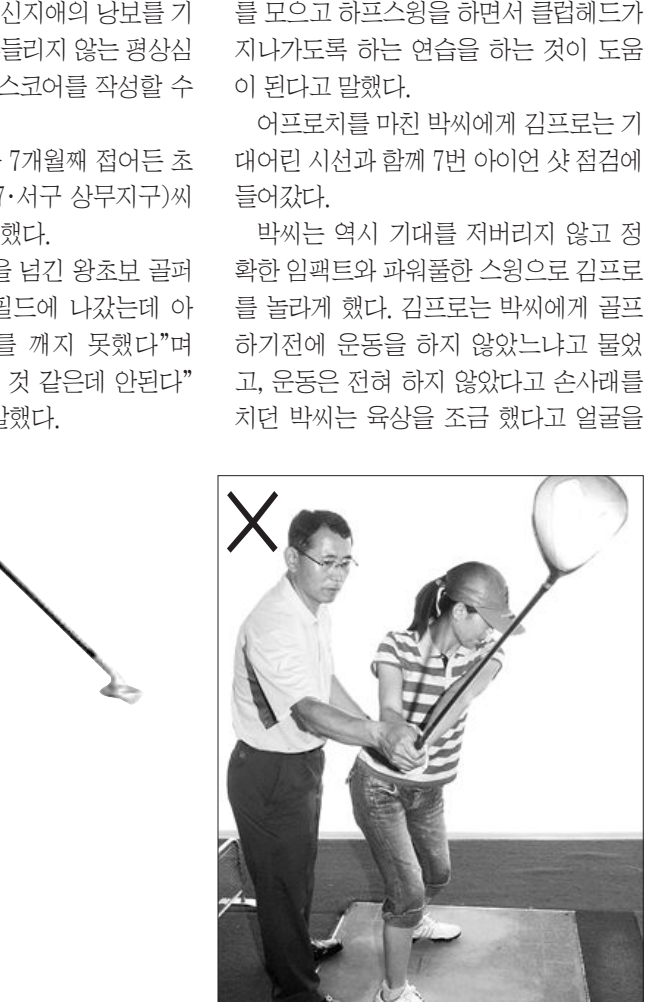
다운스윙에서 클럽끝이 먼저 내려와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던 박씨는 클럽끝이 리드하고 헤드가 늦게 따라 내려와 릴리스 되는 스윙궤도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면서 200m를 날라드는 드라이버 비거리를 보였다.

특히 임팩트시 공을 때릴 때 발생하는 타격음이 앞 뒤에서 연쇄하는 골퍼들을 자극할 정도로 강력한 파워스윙을 보여줬다. 김프로는 박씨의 경우 밸런스가 좋은데다 테이크 백에서 체중이동과 어깨 턴이 이뤄지면서 임팩트시 강한 폭발력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프로는 여성골퍼의 경우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박씨처럼 클럽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는 근력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어깨 회전이 이뤄지지 않은 잘못된 백스윙 탑(위쪽)과 어깨 회전이 이뤄진 잘된 백스윙 탑.

▲어프로치 스윙궤도가 인사이드에서 인으로 빠져나간 잘된 피니쉬 동작(왼쪽)과 피니쉬에서 클럽헤드를 아웃으로 내밀어 버린 잘못된 동작.

▲다운스윙시 헤드가 먼저 풀린 잘못된 동작(왼쪽)과 다운스윙시 클럽 끝부분이 리드하는 잘된 동작.

▲두 다리를 모으고 하는 어프로치 연습은 인사이드에서 인으로 클럽헤드가 빠져나가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

Advertisement for 'Small Meeting, Big Promise' (작은 만남 큰 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The ad is organized into a grid of boxes, each containing the name of a business, its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businesses listed include restaurants, cafes, and service providers across different districts of Gwangju.